

3월14일(월)/ 고후 6:11~13

제목: 속은 편안 하십니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의 마음이 너희를 향해서 열렸다”고 하였다(11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마음은 항상 오픈되어 있었다. 그들을 향한 바울의 사랑의 온기는 늘 준비되어 있었다. 사실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가 악화된 것은 바울 탓이 아니었고 그들 탓이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협소하였다(12절). ‘협소하다’는 말은 ‘창자가 좁아졌다’는 말이다. 이 표현은 적절한 것 같다. 마음이 어둡고 기분이 상하면 위와 장의 기능이 나빠져서 소화불량이 된다. 늘 불쾌한 사람은 그의 심장, 간도 불쾌하다. 늘 웃고 밝은 사람은 항상 소화가 잘 되고 피가 잘 돈다. 이런 장기들은 사람의 감정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바울은 강조한다. ‘여러분도 마음을 넓게 여십시오’ (13절) 말하자면 ‘창자를 편안하게 만들라’는 것이다. 그들은 그동안 마음이 웅졸하였기에 바울을 오해하였고 그와 불편한 관계를 가졌다. 크리스찬은 늘 마음을 넓게 열어야 한다. 크리스찬은 항상 좋은 창자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요즘 우리의 몸 상태는 어떤가? 소화가 안되고 가슴이 답답한가?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이 혹시 웅졸하여 누군가와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

3월15일(화)/고후 6:14~7:1

제목: 성도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자기 자신을 깨끗이 지키라고 하였다(7장1절). 왜냐하면 그들의 몸은 일반인의 몸과 다른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기 때문이다(16절). 하나님의 성전은 더럽혀져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들은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메어서 안되며, 벨리알(마귀)과 친해져서도 안되며,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되었다(14~17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고린도 사회에 만연했던 우상숭배와 음란에 물들지 말라는 것이다. 고린도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이었다. 그들은 순결의 표상이었다. 그러므로 불결과 섞일 수 없었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본질적으로 이 세상에는 구별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근본적으로 이 세상과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그것은 불결이다.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모른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산다는 것이 만만치가 않다 왜냐하면 때로는 부정과 연루된 직장을 나와야 하기 때문이다. 때로는 세속적인 재미와 오락을 끊어야 하기 때문이다. 심지어는 가족과도 연을 끊어야 하는 일도 있기 때문이다.

3월16일(수)/고후 7:2~4

제목: 죄를 조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은 자기가 지금까지 아무에게 해를 끼친 일이 없고 아무도 망쳐놓은 일이 없고, 아무도 이용해 먹은 일이 없으니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에게 마음 문을 열기를 호소했다(2절). 그동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 대한 많은 오해가 있었다. 그런 오해와 질시 속에서도 바울은 그들과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기로 작정하였다(3절). 바울은 고난 중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생각하며 위로를 받았다(4절).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있어서 진취적이며 박력적인 사람이었지만 사람을 해치는 일은 하지 않았다. 스스로 죄 짓는 것보다 남을 죄짓게 만드는 것은 죄 질이 상당히 나쁘다. 다른 사람을 유혹하는 일, 다른 사람을 죄로 몰아넣는 일, 약한 사람에게 악행을 저지르게 하는 일은 무서운 죄이다. 창녀가 더 나쁜가? 포주가 더 나쁜가? 당연히 포주이다. 창녀는 스스로 죄 짓는 죄인이지만 포주는 죄를 조장하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어떤 이의 약을 올려서 그가 분노를 가지게 하거나, 복수심을 가지게 만들어서는 안된다. 우리는 누군가의 생활의 궁핍함을 이용해서 그에게 부정을 저지르도록 조장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자기의 세속적인 오락 생활에 그 어떤 이도 끌어 드려서는 안된다.

3월17일(목)/고후 7:5~16

제목: 근심의 두 종류

바울이 전에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자기 때문에 교회에 잡음이 생겼다. 그 때 그는 분노의 편지를 디도 편에 보냈다. 그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에서 디도를 만나 고린도 교회의 불화가 해소되었고 자기에 대한 오해도 풀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편지로 인해 그들이 철저히 회개 회개하였다(7~9절). 바울의 분노의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는 속이 상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내는 계기를 마련했다(10~11절). 바울은 예전에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랑한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빈말이 아니었다는 것을 고린도 교회가 증명해주어서 체면이 컸다(14절).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지도자로서 순종해주고 맞이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였다(15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편지를 받고 처음에는 분노하고 근심했다. 그러나 나중에는 바른 길을 갔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항상 사람에게 선이 된다. 반면에 세상 근심은 사람의 피를 말리다가 죽게 만든다(10절). 지금의 우리의 근심이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 세상이 준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그 발생지가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좋은 기대를 가져도 된다.

3월18일(금)/고후 8:1~15

제목: 선심쓰면 선심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교회의 어머니같은 교회였다. 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있는데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교회를 위하여 헌금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마케도냐 교회는 가난하였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서 아낌없이 모금해 준 것을 상기하며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그렇게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1~5절). 그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님의 희생을 들어서 고린도 교인들도 그러한 희생정신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9절). 그는 또한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까지 모금하는 일에 앞장 서 왔듯이 이번 일에도 그렇게 해 줄 것을 부탁하였다(10~11절). 그는 예루살렘 교회들에 대한 연민이 연민으로만 끝나지 말고 실제로 행동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 사람들은 자주 누군가를 불쌍히 여긴다. 그러나 비극은 실행에 옮기지 않는 것이다. 누군가를 도와야겠다는 충동은 항상 일어난다. 하지만 인색함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선심을 써야겠다는 감동은 항상 생긴다. 그러나 아무 것도 하지 않음으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 우리가 남을 헤아리면 우리도 헤아림을 받는다. 선심은 선심으로 돌아오고, 인색은 인색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야 한다(14~15절).



직장 · 가정 예배 모범문



작성자 : 박유신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산제일교회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647-2(중앙동 7단지 뒤)
Tel.(031)485-0955~7 Fax.(031)401-2370